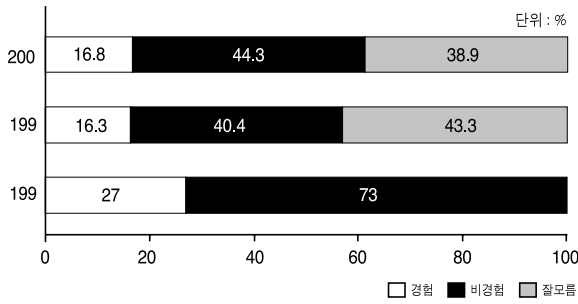


# 벤처기업 기술유출 현황과 대응방안

최근 첨단 기술력을 갖춘 국내 벤처업계에서 기술 및 영업 비밀이 유출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유출된 기술은 대부분 경쟁기업이나 후발 개발도상국인 동남아시아, 중국으로 흘러들어가 국내 벤처기업의 경쟁력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정보원(원장 신건)에서 전국 500개 산업체 및 연구소 임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기술 유출 피해경험이 있는 기업이 135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 피해경험이 있는 135개 업체의 유출빈도는 평균 2.83회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점점 증가되고 있어 어떠한 기업도 기술유출이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 국가정보원, (주)월드리서치

▲ 산업기밀 유출 피해경험

그러나 아직까지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벤처기업 관계자나 일반인의 의식이 부족한 만큼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살펴보면서 현행법과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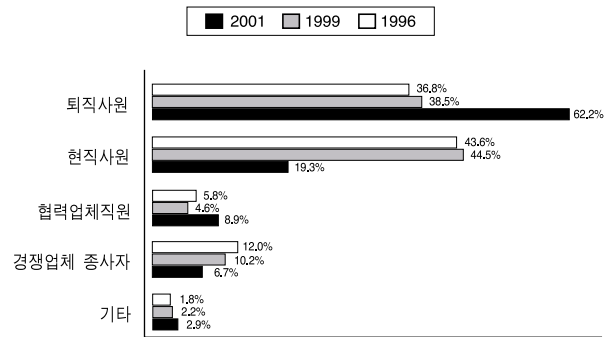
## 기술유출의 현황

국내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사례는 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대비책들이 세워졌으나 예상과 다르게 실재사건으로 확대되는 사례는 극히 적었다. 또한 있다고해도 법정 밖 화해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의 기술관리 소홀로 인해 야기되는 기술유출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IMF이후 국내 고용시장이 유연화되면서 기술관리의 소홀함이 야기되었고 국가차원

에서 기업의 영업비밀과 기술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했던 것이 국내 기술유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산업기술의 대표적인 유출사례는 전직 및 스카우트에 의한 산업기술 유출, 내부 직원에 의한 산업기술 유출, 계약관계를 위반한 영업비밀의 유출, 제3자에 의한 유출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전직 및 인력 스카우트에 의한 산업기술 유출과 내부직원에 의한 유출 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출되는 기밀의 종류는 '생산기술정보', '연구프로젝트', '원가, 입찰 등 시장정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내부 우수 인력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비롯한 사전관리대책 마련이 미비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산업기밀 유출주체 및 기밀 종류

## 도덕적 해이가 문제요인

국정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밀 유출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는 일선 업무담당자의 보안의식 부족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 점에서 기술 담당 인력의 도덕적 해이가 기술유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응답 내용	비율(%)
일선 업무담당자의 보안의식이 부족하기 때문	73.6
보안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가 허술하기 때문	62.2
핵심 기술 인력의 '부당 스카우트'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	33.2
보안시설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	29.8
개인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	25.0

중복응답, 출처 : 국가정보원, (주)월드리서치

▲ 산업기밀 유출사고의 주된 원인

정부는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기술유출에 따른 개발 의욕 저하를 방지하고 건전한 기술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기술을 다루는 당사자의 도덕적 해이와 기술인력 관리체계의 미비로 인해 정부 정책이 유명 무실하게 되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기술유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기술 중심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모호한 법규 및 조항에 대한 빠른 개정에 나서야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력의 충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전사적 노력이 필요

벤처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대기업과 다르게 개발 과정을 관리하는 연구일지나 작업자별 관리를 위한, 적게는 수천에서 수억까지 이르는 툴을 구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벤처기업인들 자신도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도덕적으로도 불감한 면이 없진 않다. 따라서 이러한 내외적인 요인 때문에 영업비밀 유출로 피해를 입었으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면이 지금까지는 많았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기관, 기업체, 개인을 망라한 전사적인 기술유출 방지에 대한 정책과 인식이 필요하다.

기술유출 문제는 이제 더이상 방관할 때가 아니다. 우선 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개정에 힘써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외국의 관련법을 그대로 원용하여 국내 실정과 맞지 않거나 이해에 혼선이 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화된 수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체의 유형과 규모에 맞는 관리기구나 센터의 설립이 바람직하다. 관리 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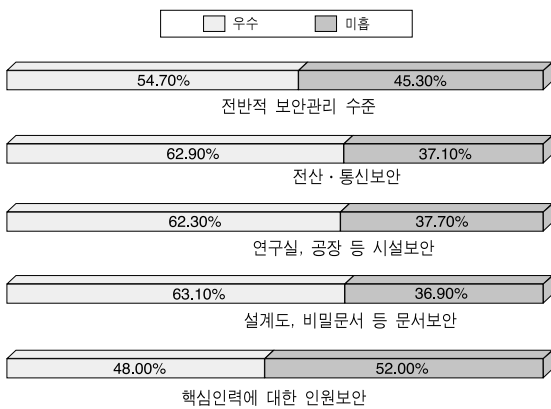
교육과 관리를 통해 기술보호의 재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사전 관리방안으로 영업비밀에 대한 명확화, 영업비밀 취급자의 한정, 취급자 비밀 준수 여부 관리, 복사제한 등 비밀보관방법 규정, 퇴직자 관리, 영업 분야별 관리, 개발부서 핵심인원에 대한 관리, 직원교육 하청 및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비밀유출 대비 등이 있다.

무엇보다도 개인 스스로가 기술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권오연 인포넷 대표이사는 “기술력 중심의 중소 벤처기업들에 비밀 유출 예방과 보유기술 관리에 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보안교육이 기술유출을 막는 최소한의 방패막이라는 것이다. 개개인의 사소한 이익과 부주의 때문에 땀과 노력으로 이룬 기술적 성과를 유출하는 것은 기술 중심의 산업시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때다.

분야	보호대상
조직·재무관리 분야	신기술 연구개발 조직, 장래 조직개편 계획, 타기업과의 합병 계획, 기업의 중점투자 분야, 신규 자금조달 계획, 신규 설비투자 계획, 예산배분 현황 등
인사관리 분야	중요기술 정보 보유 핵심인력 현황, 인사이동 자료, 직원채용 계획 등
생산관리 분야	제품 설계방법, 설계도, 공정과정 등 생산기술자료, 연구보고서, 실험자료, 신기술 이론 등 연구 관련 자료, 중장기 연구 생산계획, 생산원가, 未발표 신제품 모델, 원료 구입처 구입가격, 기계설비의 작동방법 등
판매관리 분야	제품 기술의 판매계획, 고객명부, 거래선 명부, 고객 거래선 신용조사 관련 자료 등

▲ 보호대상 산업기밀



출처: 국가정보원, (주)월드리서치

▲ 업체·연구소 보안관리 수준 평가

### 신조어

#### 모모스족

‘가짜 보보스족’의 하나인 ‘모모스족’. 보보스(BOBOS)가 부르주아의 물질적 실리와 보헤미안의 정신적 풍요를 동시에 누리는 ‘전문 직업군의 젊은 귀족층’을 뜻하는 반면, 모모스(MOMOS)는 ‘모두 빛-모두 가짜’를 특징으로 하는 중저 연봉의 일반 직장인을 칭한다.